

은파

은혜가 넘쳐나는

예술제

협주곡의 밤

2022.6.21 화요일 저녁 7시
소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

도담도담 콘서트

2022.7.12 화요일 저녁 7시
소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

주최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주관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음악과

모시는 글



산과 들이 온통 녹색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싱그러운 초여름 6월에, 코로나19라는 길고 힘들었던 어둠의 터널 끝자락에서 제22회 음악과 협주곡의 밤과 도담도담 콘서트를 갖게 되어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우리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음악과 학생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예술혼을 불사르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을 펼쳐 보이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부디 오셔서

오케스트라, 실용음악, 댄스, 국악 등의 다양한 장르를 마음껏 즐기시며 행복과 기쁨을 한 아름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더위를 연습으로 이겨낸 학생들과, 그 값진 땀방울을 열정으로 이끌어준 음악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음악으로 마음이 통하는 세상!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장 윤 태 훈

음악과 지도교사



음악부장/현악
김 성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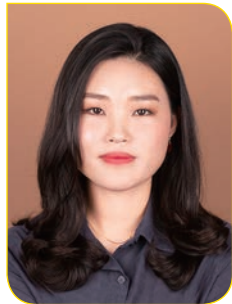
오케스트라/관악
김 진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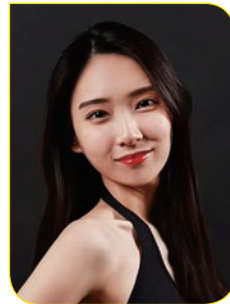
성악
설 성 엽



피아노
박 귀 성



작곡/실용
이 현 아



무용
범 경 혜



국악
주 사 랑

현악

Violin 코나친 올렉산드로 문석호 안혜진 황태영
Viola 나선아 심규민 D.Bass 은종표

관악 / 타악

Flute 김신애
Clarinet 성준홍 김영태 이철경
Saxophone 김진수
percussion 장영준

피아노 / 작곡

Piano 임정아 김자영 두희정 박로사
 심수현 문경희 박수정
Composition 정혜림

국악

판소리 박정아 타악 박상주

성악

Soprano 이은선 서임영
Tenor 신용식 Baritone 조한경

실용음악 / 뮤지컬

Vocal 김누림 정우승 김민석
 최솔지 이제이 박서랑
 조윤희
Jazz Piano 이명진 이소연
MIDI, Rap 함상욱
Composition 송민호 이승준
Bass Guitar 박윤호 정영진
Acting 배우리 최지현
Musical 윤혜경

댄스

Ballet 김인수
K-pop 박지인
Hip-Hop 이재원
Choreo 김은호 이보경
Jazz Choreo 김하연
Waacking 유 진 조운수
Locking 조상일
Girls Hip-Hop 문다예
Street 김세준
한국무용 황혜영 신지혜

6월 21일(화) 저녁 7시 소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

협주곡의 밤



지휘
김진옥



Clarinet
오청화



Violin
김진선



Soprano
오서은



Double Bass
권민혁



Violin
최진교

연주자명단

지휘자 김진옥

악장 김진선

악보계 권민혁

Flute	1st 권다루	2nd 최민서
Oboe	1st 이두찬	2nd 신슬아
Clarinet	1st 오청화	최승준 박승원
	2nd 채해정	이효열 강나연
Bassoon	1st 김예진	2nd 강소영
Horn	1st 김주신	2nd 최민서
	3rd 유민혁	4th 강병현
Trumpet	1st 임광묵	2nd 임유미
Trombone	1st 이주원	2nd 조인지
B. Trumbone	김민혁	
Timpani	장영준	
Percussion	이선영	
Piano	조하연	

Violin I	김진선 우소명 강민아 한주원 장선미 고희라 라지은 나혜연 오세은
Violin II	최진교 김연우 최지연 신다솔 나유리 고예정 정시온 이주은
Viola	김현호 유은서 신채은 류한나 박연희 김진아 이한비
V. Cello	나민석 이지연 송해인 문예진 최다솔 문세진
D. Bass	권민혁 채지원 도의진

W. A. Mozart

The Magic Flute Overture K.620

W. A. Mozart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 622 1st mov

Clarinet **오 청 화**

사사 성준홍

S. A. Koussevitzky

Double Bass Concerto in F[#] minor, Op. 3 3rd mov

D. Bass **권 민 혁**

사사 은종표

P. I. Tchaikovsky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1st mov

Violin **김 진 선**

사사 코나히 올렉산드로

V. Bellini

Opera 'I Capuleti ed I Montecchi' 중

Oh! Quante Volte, Oh! Quante

송길자 작시 임금수 작곡

강 건너 봄이 오듯

Soprano **오 서 은**

사사 설성엽

C. Saint-Saens

Violin Concerto No.3 in B minor, Op. 61 3rd mov

Violin **최 진 교**

사사 문석호

협주곡의 밤 곡 해설

The Magic Flute Overture K.620 (W. A. Mozart)

“마술피리” 혹은 “마적”(Die Zauberflöte, K.620)은 모차르트가 죽기 두 달 전에 완성한 징슈필로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는 오페라 중 하나이다. 1791년 9월 30일, 작곡가 모차르트 본인의 지휘와 작가 겸 연출가 쉬카네더 자신의 연출로 초연되었다.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어 100회 이상 지속되면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 가장 큰 흥행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연이 시작된 지 두 달도 채 안 되어 모차르트는 병석에 누웠고, 그해 12월 5일에 사망하였다. 작품 배경은 고대 이집트 제국의 신전 부근이며 성직자 ‘자라스트로(Sarastro)’가 지배하는 지혜의 세계와 이에 대항하는 ‘밤의 여왕(Königin der Nacht)’의 어둠의 세계 사이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오페라는 신비스러운 동화 같은 무대와 풍자로 가득하다. 큰 뱀에 쫓기던 타미노가 파파게노를 만난다. 이때 밤의 여왕이 나타나 초상화를 보여주며 유괴된 딸 파미나를 구해달라고 한다. 파미나의 초상에 반한 타미노는 마술피리를 들고 파파게노와 함께 파미나를 유괴한 자라스트로에게 간다. 자라스트로에게 간 타미노와 파파게노는 파미나를 구하지만, 사실은 자라스트로는 파미나를 보호하는 조력자였으며, 파미나는 밤의 여왕 강권에 못 이겨 자라스트로를 죽이러 간 것이었다. 파미나는 타미노와 함께 ‘불의 시련’을 극복하고 진리와 사랑을 찾고 자라스트로의 빛의 세계의 일원이 된다.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 622 1st mov (W. A. Mozart)

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는 모차르트가 평소 친분이 깊었던 클라리넷 연주자 안톤 슈타들러(Anton Stadler)를 위해서 작곡한 클라리넷 협주곡이다. 1791년 10월경 빈에서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클라리넷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에 이미 클라리넷의 가능성을 꿰뚫어 보고 악기의 특징을 잘 살려 작곡한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작곡한 마지막 협주곡 작품이다. 특히 오케스트라와 독주 악기 간의 절묘한 조화와 독주 악기의 절제가 특징이다. 또한 협주곡으로는 이례적으로 카덴차가 없다. 이 협주곡은 슈타들러에 의해 1791년 10월 16일에 프라하에서 처음 연주된 것으로 보이나, 역시 정확한 기록이 없어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첫 연주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Double Bass Concerto in F[#] minor, Op. 3 3rd mov (S. A. Koussevitzky)

세르게이 쿠세비츠키가 작곡한 더블베이스 협주곡의 걸작. 러시아 낭만주의의 전통을 계승한 곡으로 더블베이스 협주곡의 필수 레퍼토리로 꼽히고 있다. 지휘자로 유명한 쿠세비츠키는 더블베이스의 명인이기도 했다. 그는 1901년부터 독주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는데, 더블베이스 레퍼토리가 많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느꼈다. 그래서 1902년 본인이 직접 연주할 목적으로 이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 초연은 1905년 2월 25일 모스크바에서 작곡가 자신의 연주로 이루어졌으며, 이어 독일과 프랑스, 미국에서도 연주되었다. 1907년 쿠세비츠키가 지휘자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거의 연주되지 않고 잊혀갔다. 그러나, 그의 사후 후배 지휘자인 알프레도 안토니니(Alfredo Antonini)에 의해 다시 재조명되면서 더블베이스 협주곡의 표준 레퍼토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1st mov (P. I. Tchaikovsky)

차이콥스키가 1878년 영감에 사로잡혀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와 더불어 세계 4대 바이올린 협주곡의 하나로 꼽히는 걸작이다. 차이콥스키는 1878년 요양을 이유로 스위스 클라랑스(Clarance)에 체류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지를 돌아다니며 소일하게 되는데, 3월 초 방문한 빈에서 자신에게 작곡을 배운 바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요시프 코텍(YosifKotek)을 만나게 된다. 그는 가방 한가득 악보를 가져와 새로운 곡들을 소개했고, 일부 곡은 직접 연주해 보이기도 했다. 그때 소개받은 곡 중 프랑스의 작곡가 라로(Lalo)가 작곡한 독특한 형식의 바이올린 협주곡 《스페인 교향곡 SymphonieEspagnoleinDminor,Op.21》은 차이콥스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고, 창작의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이윽고 사흘 뒤 바이올린 협주곡 작곡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차이콥스키는 불과 일주일 만에 1악장을 완성했고, 사흘 뒤엔 2악장을, 이틀 뒤엔 3악장을 완성했다. 이때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주체하기 힘든 열정과 영감에 사로잡혀 곡을 쓰고 있는지가 잘 드러난다.

Opera ‘I Capuleti ed I Montecchi’ 중

Oh! Quante Volte, Oh! Quante (V. Bellini)

‘Oh! quante volte, oh! quante’는 아리아 자체도 유명하긴 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내용으로 작곡된 오페라로 더욱 유명하다. 이 아리아는 벨리니 빈첸초가 작곡한 오페라 ‘I Capuleti ed i montecchi’에서 나오는 아리아로 오페라의 줄거리를 보면 베로나의 Capuleti (카풀레티)가와 Montecchi(몬테키가)가 있었고 이 두 가문은 원한이 있으며 카풀레티가의 카펠리오는 자기 아들을 죽인 몬테키가의 로미오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 이에 줄리엣의 사촌 테발도가 복수에 나선다. 그러자 카펠리오는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테발도와 자신의 딸인 줄리엣을 결혼시키려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카펠레티가의 주치의인 로렌초만 이 상황을 반대한다. 줄리엣은 테발도와 결혼 소식을 듣고 시름에 빠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로미오를 찾으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부르는 아리아이다.

강 건너 봄이 오듯 (송길자 작시 임금수 작곡)

가곡 작곡가로 유명한 임금수의 걸작 중 하나. 송길자 시인의 시에 곡을 붙였다. 1987년부터 KBS 클래식FM이 자사의 가곡 프로그램에 소개할 목적으로 시인과 작곡가 등에게 의뢰해 만든 이른바 <신작 가곡> 프로젝트는 한국 가곡의 대중화와 전문화, 다양화에 두루 이바지했다. 그 대표곡 중 하나인 이 곡은 1990년 완성되었다. 송길자가 자신이 이전에 써놓았던 사설시조 <소식>을 개작해 가사를 썼으며, 임금수가 작곡했다. 원래 가사 원본에는 1절, 2절의 구분도 없고, 후렴도 없었으나 임금수가 작곡 과정에서 송길자의 양해를 얻은 후 만들어 넣었다. 초연은 1992년 테너 임정근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5년 조수미가 이 곡을 녹음해 부르고부터 유명해졌으며, 2000년대부터는 국민 가곡으로 사랑받고 있다. 4분의 4박자. E플랫 장조. 유절형식으로 작곡된 곡이고, 빠르기는 안단테(Andante: 느리게)로 지정되어 있다. 새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풍부한 감성으로 그려냈다.

Violin Concerto No.3 in B minor, Op. 61 3rd mov (C. Saint-Saens)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나단조”는 생상스가 1880년에 작곡한 3개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마지막 작품이다. 19세기 후반 프랑스 기악의 대표 작곡가였던 생상스가 당시 유럽 전역에서 명 바이올린 연주자로 이름을 떨치던 사라사테에게 헌정되었으며, 협주곡의 전통적인 형태를 따라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름다운 선율과 치밀한 구성력을 보이며 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악장에 걸쳐 매우 정열적이면서도 폭넓은 악상을 가지고 있다. 풍부한 선율과 화려한 기교, 섬세하고 깔끔한 음향, 게다가 고전적 구조에 기반한 구성력까지 겸비한 명곡으로 생상스 특유의 음악어법을 잘 드러낸다. 다른 비르투오소 협주곡들보다 기교의 난이도는 그리 난해하지 않다고 평가받지만, 전체 구조를 조감할 수 있어야 하며, 음향의 세밀한 변화와 미묘함을 표현 해야 하는 난곡 중 하나로 꼽힌다. 제3악장은 론도형식이며 독주 바이올린이 서주를 시작하면 오케스트라의 도입에 이어 다시 독주 바이올린이 서정미 넘치는 선율을 연주한다. 이어 경쾌한 제1주제가 막힘없이 펼쳐지다가 경과부를 지나 아름다운 선율로 된 종속적인 테마가 전개되고, 결이 굵고 분명한 곡상이 그대로 코다에 이어진다. 코다는 부주제에 의해 당당하게 연주되다가 화려하고 대담하게 끝이 난다.

7월 12일(화) 저녁 7시 소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

도담도담 콘서트

< 부제: 복세편살 >

도담도담 콘서트는 실용음악·댄스·국악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분야가 모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러브스토리인 '춘향과 몽룡'을 테마로 하나의 무대를 만들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협동심과 배려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부제 <복세편살>은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의 줄임말로써 전공과 입시에 고민이 있는 학생들과 또 다른 여러 고민이 있을 관객들을 위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의미한다.

지도교사



국악
주사랑

작곡/실용
이현아

무용
범경혜

Cast

댄스



- 3학년 정수인 김수빈 문영은 박채연
방서연 이여원 정채원
- 2학년 이찬용 서채영 정수아 정하은 최서연
- 1학년 허미소 구제희 김유경 김지은 김태희
서유빈 신지원 박수진 박지영 최지원
황수정

밴드



- 대 표 오정우
- 3학년 소은아(베이스)
- 2학년 김환희(기타) 박신의(기타)
오정우(베이스)
- 1학년 김태원(건반) 임룡택(건반)
장현서(보컬) 최지안(보컬) 황수빈(보컬)

보컬



- 3학년 문유나 박혜영 유승찬 이유빈
조은빈 최윤서
- 2학년 고은비 김가은 김종연 노주영
박지윤 주예은 홍주율
- 1학년 김수현 서유빈 신지원

국악

- 3학년 김수진 정민규



도담도담 콘서트 프로그램

1. 댄스 <내 마음이 들리나요...> 댄스 루비너스 안무 백중현

젊은 세대들과 공감할 수 있는 무용극을 안무하고자 우리나라의 대표 러브스토리 작품으로 알려진 『춘향전』을 각색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발레와 한국무용, 재즈댄스의 만남으로써 한국적이고 온화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동시에 현대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무용의 특성상 대사가 없는 작품으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면의 영상 효과를 넣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보다 높였다.

2. <눈먼사랑(흥타령)> 노래 유승찬 반주 이현아

국악단체 ‘양상블 시나위’의 퓨전국악곡 눈먼사랑(흥타령)은 남도민요 ‘흥(興)타령’의 가사를 인용하였다. ‘흥(興)타령’은 제목과는 상반되는 애절한 느낌을 지닌 노래로 가사의 내용은 주로 그리움을 주제로 하며 피아노 편곡으로 노래한다.

3. 춘향가 中 이별가 소리 김수진 고수 어한나

‘춘향가 中 이별가’는 눈대목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춘향가를 대표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몽룡이 한양으로 떠나게 되면서 춘향과 이별을 하게 되고, 춘향은 몽룡에 대한 그리움으로 세월을 보내는 중 남원으로 신관 변학도가 내려오면서 신연 절차를 맞게 된다.

4. <사랑가> 노래 김수진, 김환희 태평소 강호천 드럼 김민철

AUX의 ‘사랑가’는 이 시대의 사랑과 믿음을 춘향가라는 매개체와 한국적인 감성, 선율, 리듬 등을 차용하여 현재의 음악으로 재해석하여 다시금 사람과 사랑을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이다. 밴드와 한국적인 음악을 접목하여 관객들도 함께 우리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5. 밴드 연주/노래 **오음** (오늘의 음악) 드럼 **김민철**

한 남자의 청춘을 다바쳐서 사랑한 한 여인의 대한 회상 좋았던 이별을 경험한 후 좋았던 추억들만 남았던 내용을 이번 밴드공연에 담았다.

잔나비 **사랑하긴 했었나요...**

‘잔나비’의 앨범 ‘봉춤을 추네’의 수록곡이다. 타이틀 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기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이다.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 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뒀두네’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있다.

뉴이스트 W **I hate you**

싱어송라이터 ‘적재’의 앨범 ‘한마디’의 수록곡이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마지막 과정인 이별이란 키워드를 머리속에 연상시켜주며, 2절 후렴후 빠른템포의 6연음 기타 솔로는 많은 리스너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에 다름없는 노래이다.

오아렌 **나에게로의 초대** (신사와 아가씨 OST)

1996년 ‘정경화’의 2집 타이틀곡 ‘나에게로의 초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명곡으로 회자되고 있는 노래이다. 환상과도 같은 그대에게 동경을 느끼지만 선불리 다가가지 못하는 나는 그대에게 초대라는 방식으로 다가간다는 내용이며, 싱어송라이터 ‘오아렌’의 색깔로 리메이크되었다.

자우림 **스물다섯 스물하나**

‘자우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노래로 보컬 ‘김윤아’의 독보적인 음색과 탄탄한 발성 그리고 자우림 밴드만이 낼 수 있는 독보적인 음악색깔은 이 노래를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다. 돌아오지 못할 그때의 너와 나(청춘)를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노래이다.

6. 보컬양상블 반주 **이현아**

이적 **당연한 것들**

코로나 19로 마음 복잡한 날, 살아오며 평범하게 지냈던 것들에 대해 느낀 소중함을 표현한 노래이다.

Maroon5 **Memories** 드럼 **김민철** 바이올린 **우소명**

갑자기 세상을 떠난 매니저를 추모하는 곡으로 그리움을 담담하게 표현하였으며, 파헬렐의 캐논(Canon in D Major)을 샘플링한 익숙한 멜로디가 특징이다.

7. <촛불 하나> 노래 **최윤서 노주영 박지윤 오정우 주예은**

god의 ‘촛불 하나’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 큰 힘이 되는 것, 우리 학생들 서로 서로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부르는 노래이다.

